



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후 유럽 금융시장 동향

최 원 선임연구원

-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후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은행들의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 - 국제 신용평가사인 S&P는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전체 자산의 20%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,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함.
 - 동유럽 전체 은행 자산의 약 75%를 차지하고 있는 서유럽 은행들이 유로존 재정위기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우량채권 부실화 가능성도 있음.
 - 동유럽에 진출한 유니크레디트 은행, 라이파이센 은행, 에르스트금융그룹 등 서유럽 은행들이 자본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과 가계대출 제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음.
 - 또한 국제통화기금(IMF)은 슬로베니아 은행들이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저조한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, 약 30억 유로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전망함.
 - 한편,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국가들의 은행부실 해결과정에서 고객예금자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고객예금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.
- S&P는 지난 2월 슬로베니아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, 3월에는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음.
 - S&P는 지난 2월 13일 슬로베니아 정부가 국영 은행들을 지원하면서 부채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슬로베니아 국가신용등급을 “A”에서 “A-”로 하향하였음.
 - S&P는 3월 21일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“안정적”에서 “부정적”으로 하향하여 향후 추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.

- 이는 최근 헝가리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감독기관의 효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.

■ 한편, 이탈리아는 지난 2월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치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.

- 이탈리아 제3당인 오성운동은 3월 27일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서 제1당인 중도좌파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.
 - 2월 25일 총선 결과,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했으나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연방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다른 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임.
- 향후 민주당은 중도우파 자유국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모색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분간 이탈리아 정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■ 국제통화기금(IMF)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치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탈리아 금융시스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함.
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경기침체 지속이 은행 부실채권 증가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경우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다고 전망함.
- 이탈리아 정국 불안과 더불어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식이 유로존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.
- 3월 27일 이탈리아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3.65%로 정부 구성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던 전월 3.59%보다 높아졌으며, 채권 발행금액 대비 총 입찰금액 비율도 1.22배로 전월 1.61배에 비해 낮아짐.

(Bloomberg, FT, 연합뉴스 등)